

| 글. 강혁_ Khang, Hyuk

·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지역 건축은 실재하는가?

Is There Really Regional
Architecture?

오늘날 지역 건축을 다시 소환하는 일은 낯설다. 한국 현대건축에서 지역이나 지역주의는 건축 담론의 화두가 될 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의식하며 작업하는 건축사의 존재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지역 건축이나 지역주의를 거론하면서 그 실체나 미래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비평적 논의가 무의미할 만큼 현실 상황에서 '지역적인' 건축이나 '지역주의' 건축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존재하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자면 차이보다 동일성이 압도하는 게 한국 현대건축의 동시대적 상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가속화된 현상이다.

전 지구적으로 보아도 포스트포디즘과 금융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전 세계가 포획되어버린 세기말과 세기초의 상황에서, 지역주의 건축이나 담론은 점점 더 수세적 상황에 몰리고 있다. 국제적 브랜드를 갖춘 지구촌 건축사들의 어지러운 활약과 온갖 다양한 조류가 공존하는 다원주의라는 외적 현상 이면에는, 지상에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축들이 더욱 급속히 균질적이고 획일화된 문화로 수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 스타벅스나 디즈니로 대표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상업주의나 소비문화에서 잘 관찰되듯이 지구화의 엄혹한 동력은 과거의 공간적 고유함과 특이성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의 상실과 무성격한 공간의 창궐이 동시대의 건축적 상황의 가장 보편적 현상임은 여러 지리학자나 사회학자가 힘주어 강조하는 바이다. 어디에 있던 공간의 질적 차이가 사라진 지구촌 대도시의 애니플레이스(anyplace)화나 장소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국제공항이나 슈퍼마켓 같은 비 장소(non-place)들의 생활세계의 잠식은 더욱 드세러지고 있다.

케네스 프램튼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화와 테크놀로지의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 '비판적 지역주의'를 내세웠던 것이 1980년대 초엽이었다. 현대건축의 주도적 문화운동도 아니고 주류적 사조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소중한 가치이자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았다. 모더니즘이 지녔던 보편주의의 가치가 현대 기술과 자본주의와 결합할 때 건축에서 그것은 발현은 이윤과 탐욕에 봉사하무 진부하고 저급한 공간의 양산이었다. 지역주의는 거기에 대한 해독제적 성격으로 각광 받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건축대학 방문 연구원과 미국 신시내티 도시건축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월간 <이상건축>의 편집주간으로 잡지 발행에 기여했으며 다수의 논문과 역저, 공저가 있다. 건축 역사 이론 비평이 전공으로, 특히 근대성과 근대화에 관련하여 건축에서의 그것의 다양한 실천과 발현에 관심이 많다.

또한 지역주의 담론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무관하게 건립되던 개별 건축물들은 하나의 범주 속에 묶으면서 그 존재 이유를 긍정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지역 건축은 마치 멸종해가는 생물이나 사라지는 지방 언어처럼 점점 쇠퇴하고 체제에 투항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세계화의 추세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 비판과 저항으로서 지역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기에 지키고 간직해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당위의 차원에서 그러할 뿐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지역적 개성이 관광 산업이나 테마 파크에 동원되는 사례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부산광역시시는 매년 지역 내 우수한 건축물을 선별하면서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시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빠지지 않는 메트로폴리스인 도시가 특별히 '부산다운'이라는 지역적 성격이

농후한 제목을 내건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도시적임보다 지역주의를 더 강조하는 배후의 사정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산다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상당 기간 동안 실시하면서 수상한 작품들에서 '부산다운'의 특질을 현상적으로 식별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산다운'은 관념의 차원에서 존재할 뿐 현실 도시와 건축에선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의 수상이 한국 어느 도시에서나 생산되는 작품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부산의 건축사들이 '부산다운' 건축을 생산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역성을 드러내는 건축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도 없는 것이 아닌가, 혹은 역량이 결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적어도 지역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더 적실하게 들린다. 왜 부산 같은 메트로폴리스에 굳이 '부산다운'이란 이름을 붙여가며 지역적인 건축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지향성이 유효하다면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의 그것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 과연 광역 도시권으로 보자면 500만 규모의 도시가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 일인가? 지역성에 대한 집착 자체가 자기 도시에 대한 몰이해나 몰 자각에서 온 편협한 인식이 아닐까? 그런 관점 자체가 지역성을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로 보기보다 달성해야 할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는 아닌가?

아마도 우리가 지역주의 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이유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건강한 건축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한 지역이 지역만의 장소적 성격을 담은 건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만의 특유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그것이 건축을 매개로 가시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된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그것의 다른 말일 터이고, 모든 것을 동일화하려는 세계화의 압력 가운데 그 존재 가치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상태에 있는지 물어보면 그 대답이 긍정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지역 건축이 무슨 토착적인 것이거나 과거의 집짓기의 기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다. 세계로 열린 지구촌 굴지의 대규모 향만도시가 가져야 하고 또 찾아야 할 지역성이 그런 것이 아닐 것임은 더욱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담론은 우리의 현실 맥락에서 애초부터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억지로 거론되고 소환되는 의사 담론 내지 허구적 담론이 지역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이런 가혹한 질문을 통과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 지역적 건축의 문제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의문을 가져야 할 일은 서울에서 건축을 하면서 아무도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왜 부산, 혹은 다른 대도시에서는 물어야 하는가이다. IMF 이후 16년이 흐르면서 서울은 이른바 '세계 도시'(global city)의 면모를 가지게 됐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도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상대로 생존하고 경쟁하고 있는 국제도시다. 그건 마치 IMF를 계기로 변신한 삼성이나 현대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

는 글로벌 기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삼성한테 한국적인 핸드폰을 만들라거나 현대한테 지역성이 깃든 자동차를 만들라면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서울의 도시적 외양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의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에서 건축을 하면서 지역성을 거론하는 이는 없다. 오로지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나 경쟁력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것은 도쿄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하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혹시 지역이 거론된다면 그런 기준을 통과한 이후일 것이다. 더불어 메트로폴리스의 지역성이 단일한 동질성으로 수렴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메트로폴리스 부산은 어떠한가? 부산이 서울 같은 글로벌 시티일 수 없음도 분명하지만, 지방적 사고가 통용되는 도시에 머무를 수 없음도 분명하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메트로폴리스적 의식과 사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부산 지역성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시급한 것은 메트로폴리스 부산에 지역성을 지닌 건축이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과연 이 도시에 '집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가라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혹은 부산에서 어떤 집짓기를 수행해왔는가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메트로폴리스 수준에 걸맞는 집도, 부산의 삶이 읽히는 집도 제대로 지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부산의 사회 경제적 현실과 지형과 기후와 일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집을 지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가? 대신에 수도권이나 국제적으로 잘 통용되는 건축물을 닦는 데 더 주력하지 않았는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요구와 색깔이 담긴 집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수도권과 전혀 다른 해양성 기후에 경사진 지형이 대부분인 부산에 왜 서울과 똑같은 주거가 지어져야 하는가 하는 단순한 의문이 있다. 부산은 일광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며 경관과 지형도 다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동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디자인으로 번역된 경우를 좀처럼 목격하기 힘들다. 오히려 외지의 건축사가 더 민감하게 여기에 반응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것은 지역의 건축사가 자신이 터 잡은 장소의 잠재력과 자원에 대해 무신경하고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시대에 지역주의가 '고향'의 재생산이나 보수주의적 전통의 고수가 될 수는 없다. 지구가 한 마을이 된 마당에 당대의 기술이나 흐름을 외면한다면 삶과 유리된 건축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무조건 시류에 휩쓸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당대와 나란히 가면서도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지역의 건축을 생산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잘한다면 한국 건축의 문화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얇은 건축사 층이다.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나마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고투해왔다. 그들의 건축이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지했다면 그것은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이다. 거기에서 지역적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름'이 배어나오게 될 것이다. 외견상의 큰 차이보다 안에 배어있는 미묘한 차이가 더 소중한 법이다. 지역의 맥락이 스며들고 지역 삶의 결과 질을 담은 차이의 생산을 기대해 본다. ▣